

제 199회 일본 전문가 초청세미나

주제 : 일본현대미술 속의 핵 - 방사능 시대를 바라보는 예술적 상상력

강사 : 최재혁(성신여대 강사)

시간 : 2016. 9. 20. 화. 12:00 - 14:00

이번 9월 20일에 최재혁 선생님의 '일본현대미술 속의 핵'이라는 주제의 세미나가 국제대학원에서 열렸다. 최재혁 선생님께서는 도쿄예술대학 미술연구과에서 일본과 동아시아 근대 미술에 대해 박사학위를 받으셨다. 지금은 성신여대에서 교편을 잡고 계시고, 일본현대미술에 대해 평론·전시·기획 등 활발한 활동을 하시고 계신다.

최재혁 선생님은 일본현대미술에서 어떤 식으로 방사능과 핵을 다루고 있는지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였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해 미술에 대한 기대는 '치유해주는 미술'이다. 그는 분명히 그런 식의 미술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시각으로 이 문제들을 바라보고 싶다고 하였다. 이성복시인의 발언을 인용해 아름다운 예술이 아닌 '어차피 망하게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의 이야기를 하고 싶고, 한국 작가 배영환씨의 '후쿠시마 바람'에 대해 소개를 하면서 "예술이란 혹은 미술이란 답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물음을 제기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였다.

본론에서는 히로시마에서 후쿠시마까지의 이야기를 하였다. 1945년의 피폭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만의 특수 경험이었다면 히로시마와 후쿠시마 사이의 제3의 피폭이라고 하는 54년 피폭사건은 일본 전체로 확산되고, 바로 이 시기부터 원자력법이 발생하기 시작한 극적인 전환이 일어났던 시기였다. 핵무기와 원자력발전은 동전의 양면이기 때문에 미술가도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다. 우선 일본작가들의 작품을 소개하기 전에 한국작가들의 작품을 소개하였다. 그 중 정주하 작가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원자력발전소를 잘 못 느끼는 것을 알려주고, 차별 구조와 착취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또,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미래와 현재에 대한 불안을 표현하고 있다.

다음은 일본 작가들 중 대표적인 다섯 작가들의 작품을 소개하였다. 첫 번째는 일본 현대미술작가이자 무용가, 전 기획가인 다카미네 다다스(高嶺格)의 쿨재팬(Cool Japan)展(이바라키현 미토 아트센터, 2012)이었다. 이 전시에는 '쿨 재팬의 방', '패소의 방', '핵가족의 방', '재팬 신드롬의 방', '가만我慢(참을성)의 방' 등 여러 가지 방이 있다. 다카미네는 정부가 국민을 바보 취급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정부와 국민 사이의 거리가 너무 크다는 것을 표현하였다.

두 번째 작품은 마루키 이리(丸木位里)와 마루키 도시(丸木俊) 부부의 <원폭도>연작이다. 마루키 부부는 고향이 히로시마이다. 피폭 3, 4일 이후 그곳에 들어가서 상황을 듣고 작품을 그렸다고 한다. 그들의 작품에 대해 한 평론가는 이것을 보면 끔찍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아름다움이라는 모순에 직면한다고 평가했다. 이런 작품들을 보면서 우리들은 원폭이 터졌을 때 피해자와 가해자가 교차하는 순간이라고 느낀다. 부부는 소련을 비롯하여 해외 순회를 하면서 '일본인들이 단순히 피해자인가?'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다고 한다. 그 이후 부부는 여러 가지 다른 내용의 작품을 구상하게 된다. 그 중 하나가 치마 저고리를 입은 조선 여자를 중심으로 한 작업(<원폭도 제14부 까마귀>1972)이었다. 이것은 피폭이 있었을 때, 가장 피해 받은 사람들은 조선인들이었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세 번째로 소개한 것은 제5후쿠류마루호(第五福竜丸号) 사건을 그린 작품들이다. 이케다 타쓰오(池田龍雄)의 <원폭시리즈-문힌 물고기(1954)>, 마루키 이리, 도시의 <원폭도 제9부 야이즈(焼津)(1955)>, 요코야마 다이칸의 <휘팔공(輝八紘) (1942)> 등 다양한 작품들을 소개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한 작품은 오카모토 다로(岡本太郎)의 <태양의 탑(1970)> 이었다. 특히 강조한 것은 오사카 만국박람회에서 전시한 태양의 탑은 핵을 반대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앞에 있는 태양은 인류가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주었던 태양이라면, 뒤의 검은 태양은 인간이 만든 태양이다. 이런 식의 두 가지 상반되는 것들이 맞붙어서 만들어지는 에너지, 즉 대극(對極)주의라는 것을 자신의 모토로 삼았다. 오카모토 타로는 지금 활동하는 많은 작가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그 중 한 명이 다음에 소개할 야노베 겐지라(ヤノベケンジ)이다. 그는 어렸을 때 오사카 근처에

살았는데, 그렇게 화려했던 만국박람회 터가 다 끝나고 철거한 뒤에는 굉장히 무서웠다고 한다. '인류의 미래가 그렇게 밝았는데 세상이 망하면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

바로 야노베 겐지의 작품이 네 번째로 소개한 작품이다. 그는 핵을 방어하기 위한 방어복을 끊임 없이 만들었다. <아톰 수트 프로젝트> 등이 바로 그런 것이다. 그는 자기가 만든 방어복을 입고 체르노빌로 들어갔는데, 여기서 일상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사진을 찍었다. 충격적인 것은 사진에서 아기가 아무렇지도 않게 놀고 있는데 그 옆에서 동양의 미술가라는 사람이 공공 싸매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 뒤로 야노베는 미래의 어린이들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지 의문을 갖고, 다양한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2011년에는 <선 차일드>라는 큰 조형물을 세운다. 이 조형물을 보면 변화를 느낄 수 있는데, 그 이전에는 방어복이 몸 전체를 공공 싸매고 있었는데 이제는 모자를 벗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3.11 이후의 미술에 대해 소개하였다. chim↑pom은 2005년 도쿄에서 결성된 6인조 아티스트 집단이다. 그들은 별로 진지하지 않고 장난처럼 예술을 하는 친구들인데, '당사자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였다. 가토 쓰바사의 <11.3 후쿠시마 프로젝트>에서 11.3은 3.11이 거꾸로 된 날이자 문화의 날이다. 가토는 후쿠시마 현 주민들과 힘을 합쳐 활동한 지 5개월이 지났을 무렵, '당사자성'이라는 말이 키워드임을 깨달았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최재혁 선생님은 chim↑pom의 "상상력이야 말로 그라운드 제로에서의 가능성이며 미래를 만들어가는 가장 근본적인 힘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아트가 존재한다고 굳게 믿는다."라는 발언을 소개한 후, 미술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직접적인 것들보다도 은유를 통해서 물음을 제기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했다고 하면서 세미나를 마무리 지었다.

<질의 응답>

질문 : 소개해주신 작가의 작품들과 발언들이 일본 사회에서 어느 정도 유통되고 있는지, 그리고 사람들의 공감을 얻고 있는지, 또, 일본 사회에서 미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궁금합니다.

답 : 제가 미술사를 공부하면서도 느끼는 그런 괴리감 내지는 정말 고립되어 있는 예술의 분야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이런 식으로 강연을 하면 확대해서 받아들이시는 분이 계십니다. '굉장히 일본인은 미술로 인해서 역동적으로 바뀌고 있구나'라고요. 하지만 미미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chim↑pom이라는 그룹은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전략 자체가 게릴라 아트, 스트리트 아트 등 이슈를 만드는 경우이긴 하지만, 사실은 '예술을 통해서 사회를 본다'라고 합니다. 저도 사학과에서 공부를 하다가 미술을 하게 됐는데, 예술을 보면 사회가 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술이란 존재가 무력 자체에서 시작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카모토 타로(岡本太郎)라던가 chim↑pom 이런 경우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미술인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적어도 한국에서 "어떤 화가 아세요?"라고 하면 이중섭 다음은 없습니다. (일본은) 우리보다는 훨씬 더 미술에 대해 관심이 있지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바라지 않는 방향입니다. 예술이 아름답고 사람을 어루만져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거기에만 조금 매몰되어 있는 것도 일본 미술과 사회관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질문 : 3.11 이후에 사람들의 지친 마음을 위로하는 예술 중 무라카미 다카시(村上隆) 작품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오백나한도(五百羅漢圖)》가 그러합니다. 혹시 그 작업에 대해 코멘트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답 : 말씀하셨던 《오백나한도(五百羅漢圖)》는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고, 이야기만 많이 들었습니다. 핵 문제, 패전에 관한 문제는 무라카미 다카시를 통해 발전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다루지는 않았지만, 무라카미가 '리틀 보이'라는 전시를 LA에서 했는데, (질문자 : 미국에서 문제가 많았죠.) 미국에서 봤을 땐 '무라카미는 사회적인 발언을 하는 작가' 이런 식으로 외국에서 이야기하는 입장입니다. 일본에서는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무라카미가 최근 3.11 이후에 《오백나한도(五百羅漢圖)》 작품에서도 변화가 보이고, 시작할 때 내셔널리즘적인 작

품들과 함께 일본의 에도시대(江戸時代) 후기에 있었던 우키요(浮世)를 포함해서 기상의 계보 같은 것을 애니메이션과 만화를 연결시키고, 중간에 다른 방향으로 갔다가 다시 또 돌아오고 있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지진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오백나한도(五百羅漢圖)》 역시 에도시대에 한 화가의 작품에 영감을 받았고, 3.11 이후에 벌어지는 보수적인 분위기와 연결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구체적인 생각을 못해서 정확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질문 : 일본은 핵, 원자력이라는 말이 구분되는 것처럼 물리학적 접근을 하면 동일한 동전의 양면이지만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는 폭탄하고 원자력발전을 구분해서 생각하는 사고가 있습니다. 한국 사회도 그렇습니다. 일본도 3.11 이전까지는 그런 사고가 기본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오카모토 타로(岡本太郎)가 오사카 만국 박람회에서 '태양의 탑'을 제작할 때, 핵과 원자력을 동일시했다면, 둘은 다르지 않다는 인식을 가졌다면 상식적으로는 상징물의 제작자체를 거절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태도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질문은 두 가지 입니다. 첫째로, 오카모토 타로에게 핵과 원자력의 동일성에 관한 인식이 있었는지, 둘째로 실제로 오카모토 타로의 '태양의 탑'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석이 되어왔고, 선생님이 봤을 때 핵과 원자력에 관련시켜 봤을 때는 어떻게 이해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 : 선생님 말씀대로 3.11 이전에는 원자력과 핵폭탄의 구분 같은 것은 사회적으로는 물론이고 예술가들에게도 없었다고 합니다. 오카모토 타로도 절대 인지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인물의 특성은 핵을 반대한다는 강력한 반대의식을 표명한 것도 아니고, '양극단의 것들이 모여서 펼치는 대극의 세계'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합니다. '태양의 탑'을 핵과 관련해서 해석한 것은 최근의 진보적인 평론가들이 해석을 통해 하는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카모토 타로는 그런 식의 반핵 사명감을 가지고 제작을 하는 그런 부류의 예술가는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듭니다. '태양의 탑' 같은 경우도 제작 비화가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 거절하다가 그쪽에서 보내온 것이 단계 겐조(丹下健三)가 만든 원형의 스페이스 셔틀 같은 것이었는데, 거기에 어떻게든 기념탑을 만들 것을 요구하니까, '터무니 없는 것을 만들어서 이것들을 대결시켜보자'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단기 겐조 같은 건축가들이 보기에 말도 안 되는 것이 왔는데, 보는 순간 '젖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물론 전후 아방가르드를 이끌었다고 생각하지만, 그 이후 정치적으로 진보적인 예술을 펼쳤던 것은 아닙니다. 사실 오카모토 타로가 전후에 굉장히 평가 받지 못했던 부분이 나중에 쇼에 나와서 이상한 아저씨가 되면서 영향이 줄어들었다가 90년대 이후 2000년대 이후에 다시 미술사에서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힘을 실어줬던 사와라기 노이(榎木野衣)라던가 단행본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3.11 이후 핵 문제와 연결시키는 저작들이 있는데, 해석의 문제로서 봤던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해가 있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 : 선생님께서 '방사능 시대'라고 이름을 붙이고 그런 감각으로 무엇인가를 형상화 했던 작가들을 소개해주셨습니다. 그러한 첨예한 문제의식이 일본에 전후를 살았던 예술가들 사이에 있었다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받았는데요.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오카모토 타로 같은 사람과 말씀하셨던 '방사능 시대'를 산다는 것에 대한 연구들이 존재하는지, 아니면 선생님도 개인적으로 계획이 있으신지를 간단히 듣고 싶습니다.

답 : 이미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있습니다. 저는 오카모토 타로에 굉장히 많은 흥미가 있는데, 일본 미술을 읽을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재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일본 예술가 두 명이 무라야마 토모요시(村山知義)와 오카모토 타로인데, 근대에서는 토모요시, 현대에는 타로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조금 다른 식으로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